

순천시, 첨단신산업으로 도시 미래 디자인 한다

융합·규제 혁신 실증사업 등 3개 로봇 공모사업 선정 25억원 확보 자율주행 이동 체계·바이오산업 전진기지 구축 미래 먹거리 선점

순천시가 '융합 로봇' '우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섰다.

순천시는 올해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사군 로봇창의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서로봇 등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로봇산업을 육성해온 순천시는 앞으로 의료(재활로봇), 산업(협동로봇) 분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올해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신규 공모 사업인 '자율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비 2억원을 확보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왕복하는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개인형 이동장치(PM)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정원 일대에는 'K-디즈니 순천'을 이룰 미래 첨단기술 체험교육 공간이 조성된다.

순천시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순천만잡월드, 4차산업 클러스터 일원에 첨단기술 체험교육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순천시는 '기업 진화 정책'의 하나로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대폭 개정해 투자 경쟁력을 갖

췌다.

조성 중인 선월 농공단지과 해룡2-2 일반산업단지는 '순천시 5대 핵심 전략산업'을 키워낼 투자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해룡일반산업단지와 해룡임대산업단지, 율촌1산업단지는 고속도로와 율촌-광양항이 가까워 최적의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시는 '기업 진화 정책'이 성과를 거둬 민선 8기 들어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00명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한화오션에코텍과 투자액 3000억원, 고용인원 530명(협력사 포함)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다.

승주읍에는 '순천 바이오산업 전진기지'를 구축해 지역소멸을 막을 방침이다.

이곳에는 총사업비 620억원을 투입해 원료 공급, 소재화, 제품 생산, 유통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순천시는 지난해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하며 바이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있다.

승주읍에는 글로벌대학 30 사업과 연계한 '그린 바이오 지식캠퍼스'도 운영한다. 순천시와 기업, 대학은 이곳을 기반으로 함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가 순천시에 준공된다.

순천시는 이에 맞춰 항공우주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학술 행사 등을 마련해왔다.

순천시의 미래산업은 행정 분야에도 녹아들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8월부터 단순 반복되는 행정업무를 인공지능에 맡기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로봇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자동화'(RPA)를 도입하면서다.

우선 단순 반복하는 수작업 업무 가운데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지급, 교육훈련 실적등록 업무 등에 업무자동화를 적용한다.

모든 부서가 매달 2시간 이상 할애하던 이 업무들이 자동 처리되면서 업무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방지할 것으로 순천시 측은 기대했다.

순천시는 업무자동화를 통해 연간 약 7400시간의 업무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자동화를 도입한 뒤 해마다 성과 분석과 전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3개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이 율촌산단에 조성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건축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상의 업무자동화를 발굴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3대가 잘 사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순천을 최적으로 선택한 기업과 청년들이 성과를 내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을 집중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순천이 세계의 일류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 지역전문가 양성

진상 규명·피해자 명예 회복 50명에 '여순사건 해설가' 중

여수 시민들이 지역의 아픔이 담긴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여수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와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를 위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 지역 전문가 양성은 올해 3번째 진행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2021년 통과된 이후 해마다 인기를 더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여순사건 왜곡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여순사건 전문가'로 거듭날 여수 시민은 모두 50명이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전문가 교육을 받는다.

수업은 '여순사건의 개요'를 시작으로 '여순사건이 미친 영향', '여순사건 특별법과 향후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열린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여수시 제공>

심도 있는 이론 강의와 참여자 발표 수업, 현장 답사 교육이 15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고 발표 수업을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여순사건 해설가' 중을 준다.

전문가로 거듭날 수료생들은 앞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관련 강의나 교육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061-651-1530)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어르신 치매 치료비 지원 기준 완화

소득기준 120%→140%... 본인부담금 年 36만원 실비 지원

고흥군은 이달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전남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고흥에 사는 60세 이상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고흥지역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2022년 10.8%에서 지난해 11.01%, 올해 5월 기준

11.14% 등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진단 질병코드와 처방 약제명이 쓰인 처방전·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많은 치매 어르신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관리 정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곡성물' 열대과일 30% 할인 판매

애플망고·그린파파야 15일까지 신규가입 팬 3000원 할인권

곡성군 대표 소품물 '곡성물'이 오는 15일까지 2주간 애플망고(사진)와 그린파파야를 30% 할인 판매한다.

곡성물이 내놓은 애플망고와 그린파파야는 곡성군 일대에 있는 '임마누엘아트팜'이 납품하고 있다.

이곳 2.3ha 온실 농장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애플망고와 그린파파야, 바질, 공심채 등 다양한 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폐업을 활용한 난방시설을 도입해 연중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체 발효 유기질 퇴비를 사용해 무농약 인증도 얻었다.

이 농가는 '곡성사랑 아이사랑 캠페인'을 통해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곡성 애플망고는 단향이 강한 '어원' 품종으로, 붉은 껍질과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그린파파야는 태국 요리 '솜팜'이나 샐러드, 무침용으로 즐길 수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문을 연 곡성물은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액 7억원을 넘겼다.

곡성물에는 지역 110개 농가·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유기농 쌀, 한우, 멜론, 토란 가공식품 등 470여 종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0% 할인받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



곡성물은 신규 가입 회원에게 3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곡성물은 신규 가입 회원에게 3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곡성물은 신규 가입 회원에게 3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시의회 하반기 강형구 의장 선출

오행숙 부의장 등 의장단 구성

순천시의회는 9대 하반기 의장에 강형구(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장은 1일 열린 순천시의회 279회 1차 본회의에서 신임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오행숙(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뽑아 의장단을 구성했다. 4선인 강 의장은 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순천시의회 의과대학유치 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해왔다.

강 당선자는 "지난 2년 동안 9대 순천시의회 전반기를 훌륭히 이끌어 준 정병희 의장과 동료 의원에



감사를 전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의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행숙 부의장은 순천시의회 개인 아래 최초 여성 부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8대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순천시의회는 2일 4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해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의의회 하반기 류제동 의장 선출

김준곤 부의장...원구성 완료

고흥군의의회는 지난 28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하반기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원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에는 류제동(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 부의장은 김준곤(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류제동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



서겠다"며 고흥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상임위원장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미경(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승욱(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조영길(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 어르신 '문화 600 인생 한 컷'

75세 이상 880세대 이야기 사진·글로 기록...10월부터 관람



보성군 노동면에서 열린 '문화 600 인생 한 컷' 전시에서 주민들이 지역 어르신의 생애가 담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어르신 880세대의 회로에락을 담은 기록의 역사가 이달부터 시작한다.

보성군은 이달부터 지역 어르신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아 전시하는 '문화 600 인생 한 컷'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보성지역 75세 이상 주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한다.

보성군의 인적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넓히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88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오

는 10월부터 각 읍·면 문화센터에서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역 작가들과 협업해 어르신 집을 찾아 사진 촬영·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문화 600 인생 한 컷' 사업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사진들이 감동을 선사하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